

 금융위원회	<h1 style="margin: 0;">보도자료</h1>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	2021.2.9.(화) 10:00	배포	
책 임 자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윤 병 원(02-2100-2530)	담 당 자	김태훈 서기관(02-2100-2533) 이소민 사무관(02-2100-2535) 조윤수 사무관(02-2100-2859)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이 한 진(02-2100-2970)		김종식 사무관(02-2100-2974)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 주 영(02-2100-2620)		장지원 사무관(02-2100-2696)	

제 목 :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 ❶ 「핀테크·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과,
- ❷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을 논의하였습니다.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

- ◆ **(배경)** 급속한 디지털금융化, 플랫폼의 금융진출 본격화 등에 따라, 디지털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전반의 정비가 긴요
 - ➔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핀테크·빅테크 등의 건의과제를 바탕으로, 디지털금융 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
 - * 10차례 핀테크·빅테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 적극 수렴
- ◆ **(논의)** ①디지털신사업 추진여건 개선, ②핀테크-금융사 협업 촉진, ③디지털 인프라 관련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과제를 논의
 - ❶ (디지털 新사업)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이용대상 확대, 통합인증 시스템 도입 등
 - ❷ (핀테크-금융사 협업촉진) 「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 「금융-핀테크 매칭 플랫폼」 구축, 핀테크 IR·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
 - ❸ (디지털 인프라) 망분리규제 합리적 개선, 비대면 금융서비스시 안전하고 편리한 출금동의를 위한 제도개선 등

- ◆ **(규제개선) 총 74건의 건의과제 중 52건(70%) 즉시 개선 추진**
(11건 중장기 검토, 11건 수용 곤란)

[건의과제 검토 결과]

구분	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합계
제도개선 과제	31	10	11	52
기타 현장애로 해소과제	21	1	0	22
합계	52	11	11	74

[주요 개선과제]

과제	기타 현장애로 해소과제
허용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매칭 플랫폼' 구축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이용대상 확대	핀테크 기업들의 IR·해외진출 지원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도입	정책금융 지원제도 안내 포털 구축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법령해석 명확화	핀테크 기업 민원 접수 창구 개설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법적 기반 마련	비조치의견서 관련 컨설팅 강화
망분리규제 단계적 개선	핀테크 해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지원
오픈뱅킹 정보공유 범위 확대	오픈뱅킹 정보제공 API 구축 지원
다양한 동의·인증방식 도입	중소 핀테크 기업 전용 홍보관 운영
디지털금융 업권 표준약관 제정	핀테크 취업박람회 정기적 개최
마이데이터 전송대상 정보범위 확대 추진	IT 전공자의 핀테크 산업 진입 제고

- 아울러, 2년간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파악한 개선필요사항을 반영,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마련하였음
 -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 혁신적 아이디어 모의시험 기회 제공
 - 샌드박스 운영개선 : 안전성 입증된 서비스 부가조건 적극 완화 등
 - 정책금융 등 지원강화 : 핀테크 성장단계별 촘촘한 지원체계 등

- ◆ **(향후 계획)** 수용 과제는 개선 계획에 따라 방안 발표, 규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에도 규제개혁 및 현장 소통을 지속

I.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 도규상 부위원장이 주재한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① 핀테크·빅테크 등이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핀테크·빅테크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 * ① 디지털 신산업 추진여건 개선 ② 금융회사-핀테크 협업 강화
- ③ 디지털금융 인프라 개선 등의 방안 포함

② 2년간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파악한 개선 필요사항 등 반영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 ①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식 개선
- ③ 정책금융 등 지원강화 방안 등 포함

※ 부위원장 모두발언은 [첨부 1] 참조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 일시 : '21.2.9(화) 14:00~15:30 (영상회의)

• 디지털금융 협의회 위원

- (공동주재)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 (금감원) 김근익 수석부원장
- (금융권) 한동환 KB금융지주 부사장, 정중호 하나금융연 소장, 황원철 우리은행 디지털전략단장, 이인석 삼정KPMG 전무이사
- (핀테크·빅테크) 김용진 서강대교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 (전문가)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교수, 강경훈 동국대교수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홍대식 서강대교수,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 (노조) 최재영 금융결제원(추천), 김준영 신한카드(사무금융노조 추천)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영상회의로 진행

II. 주요 논의 사항

1 핀테크·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①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허용, 중소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시 중계기관 활용 등 디지털新사업 추진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 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등을 허용하겠습니다.

□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소액후불결제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허용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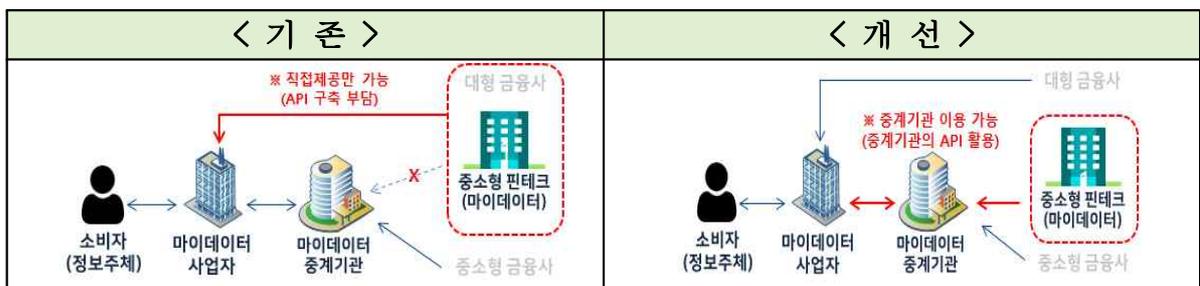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

→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도 플랫폼의 非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중소 핀테크(마이데이터 영위)들도 중계기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핀테크기업도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 핀테크 기업이 고객정보 보호, 부가서비스 개발 등 마이데이터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시 정보 제공 금융회사 수만큼 인증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인증을 도입하겠습니다.

→ 다양한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정보주권 행사가 용이해집니다.

② 「핀테크 육성지원법」 제정, 「금융-핀테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핀테크와 금융회사간 원활한 협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 「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①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 확대

* 디지털 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핀테크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화

② 핀테크기업출자시 신속한 승인절차 등

* 예 : 사전승인 신청시 30일내 처리 등

③ 투자손실 등 발생시, 임·직원 면책 등

→ 금융회사가 명확한 법적근거에 기반해 핀테크 기업에 원활히 투자하면서, **금융-IT 간 실질적 융합이** 촉진됩니다.

2.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협업수요를 매칭하는 「금융-핀테크 매칭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서비스와 핀테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서비스·인력 등을 DB로 구축하여 상호 제공하고,

○ 매칭 성사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해 **금융회사의 디지털전환과 우수한 기술을 갖춘 핀테크 육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융회사	제출 →	매칭 플랫폼	제출 ←	핀테크 기업
당면 과제(명세서), 조건(장비·보안요건 등), 협업 방향 등	← 매칭주선	현황 파악 DB구축·관리 매칭 주선	→ 매칭주선	보유기술, 인력 보유 현황, 제안서 등

3. 핀테크 기업들의 IR·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코리아 핀테크 위크」 확대실시(1회→2회), KOTRA 핀테크 데스크 등 핀테크 기업들의 IR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회사·VC 등도 우수 핀테크기업과 협업기회가** 늘어납니다.

③ 망분리 규제 합리화, 오픈뱅킹 고도화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핀테크·금융회사의 혁신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핀테크, 금융회사,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21.上)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한 사례*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여 제도화를 추진하고,

* ①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고, ② 금융회사 내부망과 독립구성·운영되는 연구·개발사업(「금융기술연구소」)에 대해 망분리규제의 예외를 인정(‘20.4월)

○ 기업의 리스크관리 능력, 고객정보 분리 여부,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망분리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보안 등이 철저히 지켜지는 기반 하에서, **금융회사의 IT기반 구축**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2. 오픈뱅킹 참여기관과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디지털 新산업 등과 오픈뱅킹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마이데이터 산업과 오픈뱅킹 간 연계(‘21년중)

→ 마이데이터 앱에서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등을 한번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오픈뱅킹 이용기관으로 참여)

②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와 오픈뱅킹 간 연계(‘21.上)

→ 핀테크 고객들도 오픈뱅킹 계좌 등록시 일일이 계좌입력 필요없이 일괄 등록 가능 (현재 은행권만 이용가능한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API 형태로 추가 개방)

□ 참여기관 간 데이터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 (카드사) 결제예정금액, 결제계좌 등, (핀테크) 선불계정 잔액, 거래내역 등

□ 증권사·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오픈뱅킹에 참여합니다

→ 오픈뱅킹 참여기관 및 정보공유 범위 확대로 원스톱 자금이체 등 **이용자 편의**가 증대되고, **업권간 서비스 경쟁**도 촉진됩니다.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시장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을 모의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정부와 민간이 주요 정책과제(예 :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에 대해 공동해법을 논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 모의시험을 통해 핀테크의 아이디어 보완, 사업화 준비가 가능하고, 취약계층 지원효과 등이 입증된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2.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20년 대비 총 규모 31% 증가)하고, 보증·대출의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 핀테크 성장단계별 꼼꼼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것입니다.

3. 샌드박스 신청 전(全)과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 외부 전문기관, 금감원,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법률·특허, 부가조건 준수 등과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 법률, 특허 등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스타트업·중소 핀테크 등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부서 기능·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등 샌드박스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늘어나는 샌드박스 지원수요에 맞게, 관계기관 역량이 확충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운영됩니다.

Ⅲ. 향후 계획

- ① 수용 과제는 개선 계획에 따라 규정 개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등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금융샌드박스 지정 검토 과제(예:소액후불결제)의 경우 2월 개최 예정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② 수용곤란 과제라 하더라도 추후 제반 여건 변화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패자부활전) 추진하겠습니다.
- ③ 아울러 향후에도 핀테크·빅테크의 혁신 잠재력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개혁 및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①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선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정례적·상시적 의사소통 지속하겠습니다.
 - ② 분기별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샌드박스 지정 건 등에 대한 동태적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④ 기재부, 과기부, 중기부 등 여러 규제가 복합되어 있는 다부처 복합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디지털금융협의회 논의를 통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첨부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첨부2] 핀테크·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첨부3]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공공누리 공공지각물 자유이용허락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금융관리청 콜센터
--	---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더 많은 국민에게 디지털금융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회초년생 등도 잔액 걱정 없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은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꼭 필요한 지출도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

사회초년생 등도
플랫폼 정보를 바탕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이용 정보로
지급 능력을 확인한대요~

후불 결제 서비스로
급한 지출이 가능해졌어요~



금융과 기술(IT), 융합의 장이 마련됩니다.

디지털 기술에 목마른 금융 회사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핀테크회사의 만남이 쉬워집니다

지금은 ☹️

금융 회사 :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고 싶은데 어떤 회사가 있는지 알기 어려워요.”

핀테크 회사 :

“금융 회사에 우리 기술을 알리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찾았어요!

핀테크 기술을 홍보·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

‘금융-핀테크 매칭 플랫폼(가칭)’을 통해 금융 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이 더욱 쉬워집니다.

(매칭이 성사되는 경우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 참여 연계)

디지털 신사업, 도전의 기회가 열립니다.

중소 핀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은
중계기관의 정보처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

중소 핀테크 기업은 중계기관 이용이 가능해지고
국민들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디지털금융 환경이 마련됩니다.

망분리 규제가 보다 유연하게 개선됩니다

탄탄한 IT 기반을 쌓고
우수 인력을 총원해
디지털전환에 성공~

고객정보 보안은
더욱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지금은 ☹️

엄격한 망분리 규제가 적용되어
IT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

업무 특성,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망분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핀테크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됩니다.

핀테크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합니다.

지금은 😞

핀테크의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부담 없이 시험해 볼 기회가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

금융권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핀테크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과제의 해법을 찾는
소통의 장이 마련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서비스 출시, 사업고도화
운영과정 전반을 개선합니다.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는
부가조건을 풀어드려요!

혁신성 심사 사례집도
공유합니다~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라면
OK

지금은 😞

기업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부가조건 등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

혁신성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부가조건을 적극 완화하는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적 서비스 출시가 보다 활성화됩니다.



핀테크 기업에게 도약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기업 성장단계별로 정책금융 자금지원,
민간 투자자금 유치, 법률·경영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

핀테크 기업들은
사업초기에 자금이 부족하고,
법률·특허·경영까지 신경쓰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

핀테크 성장단계별 촘촘한 자금지원,
법률·특허·경영 컨설팅 등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맞춤형 사후지원

